

(보충자료) 지방별 민요 정리

1. 지방별 주요 민요 특징 정리

지역	민요조	구성음 (주요음)	민요특징
남도 민요 (전라도)	육자배기 조	미. 라. 시	- 시김새 : '미'는 떠는 소리(요성), '라'는 평으로 내는 소리, '시'는 '도'에서 강하게 꺾는 소리(퇴성)*, 밀어 올리는 소리(추성) - 가락이 구성지고 극적인 표현이 특징 - 시김새가 정교하고, 가락이 어려움 - 선율이 유연하면서도 음의 폭이 넓고 장절의 변화가 다양 → 예술적 가치가 높음 - 진양조 장단 : 그 박자가 매우 느려서 한스럽고, 서정적인 느낌 + 억양이 강하고, 구성진 멋 '육자배기'라는 이름은 이 노래의 장단인 진양조장단의 1각이 6박을 단위로 하는 노래
동부 민요 (강원,함경,경상도)	메나리 조	골격음(미. 라. 도) 경과음 (솔. 레)	- 경상도 민요는 빠른 장단이 많아 흥겹고 경쾌함 - 강원도·함경도 민요는 탄식조나 애원조의 노래가 많다. '미'에서 주로 떠는 소리가 난다.
서도 민요 (황해도,평안도)	수심가 조 (수심가토리)	레. 미. 솔. 라. 도 (레. 라. 도)	- 중간음 '라'를 잘게 떨어주는 창법이 특징 '도'는 흘러내릴 때, '라'는 떨 때, '레'는 마칠 때의 음, '솔' 음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 콧소리로 내는 얇은 떠는소리와 큰 소리로 길게 뿡다가 갑자기 작은 소리로 콧소리를 섞어서 가만히 내는 떠는 소리 - 장식음 처리가 많고 콧소리를 섞어 잘게 떨기도 한다. 경기 민요보다 더욱 다양한 시김새를 사용 - 수심에 가득찬 애수를 띠며, 장단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 - 이 지역의 민요는 5도 위에 3도를 쌓은 음계가 많은데, 으뜸음 위의 5도 음을 떨어주는 창법이 특징이다.
경기 민요 (서울,경기,충청도)	창부타령 조	솔. 라. 도. 레. 미 or 라. 도. 레. 미. 솔	'레'는 약간 떠는 목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심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기가 쉽다. - 가락의 종지음의 특징은 '솔'이나 '도'로 종지하고 '라'로 종지하는 곡도 있다. '솔.라.도.레.미'의 5음 음계로 구성된 창변적 특성은 '창부타령조' - 요성과 퇴성 등의 시김새가 다른 지방의 음악적 특징들에 비해 덜 격렬함 - 음정이 분명하고 음색이 부드러우며 가락이 자유롭게 흘러서 맑고 경쾌한 느낌을 줌 + 한 글자에 많은 음(잔가락)이 붙음 - 가락이 순차진행한다.
제주 민요	?	?	- 강한 억양과 사투리가 많이 쓰임 → 제주도의 특이한 방언으로 인하여 순수한 향토 민요가 많다. 이것은 전문 소리꾼들의 교류가 어렵기 때문 → 향토 민요 > 통속 민요 - 어업과 관련된 일노래가 많은 것이 특징

2. 남도 VS 경기 VS 서도 민요

	남도 민요	경기 민요	서도 민요
음역	▪ 낮은	▪ 중간	▪ 높은
발성법	▪ 목을 눌러 주며 뱃속에서 뿡아 올려 목과 가슴을 올리는 탁한 발성		▪ 비성과 두성을 써서 되바라지는 듯한 강한 소리
음계와 시김새 표현	'미라시'의 3음을 중심으로 미를 떨어주고 '라'는 평으로 내며 '시'는 꺾어 준다. - 굵게 떠는 소리, 꺾는 소리가 있고 힘차고 우렁차다	▪ '솔라도레미', '라도레미솔'의 5음을 써서 순차진행을 하고 시김새도 많이 쓰지 않는다.	'레미솔라도', '라도레미솔'의 5음을 쓰며, 보통 긴 음에서 떨어 주되 특히 중간 음에서 떨어 줌으로 낮은 음에서 떨어 주는 남도 민요와 대비가 됨 - 가늘게 떨어주며 콧소리가 섞여 있고 애절한 노래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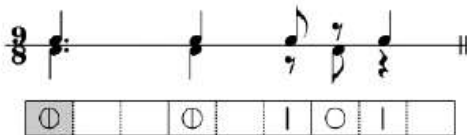
3. 지역에 따른 민요의 장단 분류

남도 민요		경기 민요		서도 민요		동부 민요 (함경도)	
민요	장단	민요	장단	민요	장단	민요	장단
등당기타령	중중모리장단	늘리리야	굿거리장단	금다래공	중모리장단	돈돌라리	자진모리장단
등당에타령		풍년가		싸름	중중모리장단		
에농데농		천안삼거리					
해남 평타령		태평가		풍구타령	굿거리장단	제주 민요	
		한강수타령		봉독타령		민요	장단
강강술래	자진모리장단	도라지타령	세마치장단			너영나영	세마치장단
개고리개굴형		아리랑		동부 민요 (경상도)		서우젓소리	굿거리장단
고사리꺾기		군밤타령	자진모리장단	민요	장단	평평 장 서방	자진모리장단
포리파기		월월이	느린 4박 장단			즐거운 생활 주요곡명 및 장단	
덕석물자		기타 동부 민요		캐지나 청청	굿거리장단	남생아 놀아라	자진모리장단
남생아놀아라		동부 민요		나네	중중모리장단	달팽이 노래	
청어엮자		민요	장단	도움소	자진모리장단	앞니 빠진 동강새	
장장 질세기		새노래	자진모리장단	떡 노래		덕석물기	
진도아리랑		나물 노래		동부 민요 (강원도)		이 거리 저 거리	
산아지타령		두껍집이		민요	장단	각거리	
	여물까			대문 열기			
거문도 뱃노래	굿거리장단	어깨 동무		메밀노래	엇중모리장단	사물악기가 된 도깨비	굿거리→자진모리
			가래질소리	굿거리장단		중중모리→자진모리	
			강릉 <모섬는소리>	엇모리장단	설구대 소리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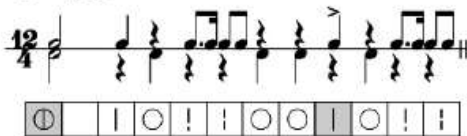
4. 주요 장단의 기본형

[많이 쓰이는 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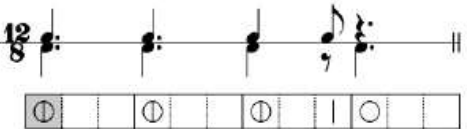
<세마치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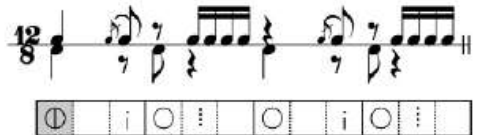
<중중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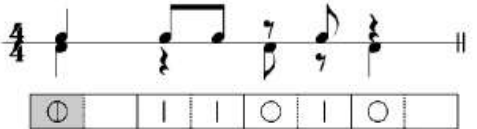
<굿거리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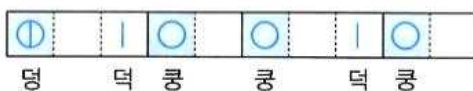
<중중모리장단>



<휘모리장단>



<엇모리 기본 장단>



엇중모리 (♩ = 80~90)



★ 장단의 기본 특징 (즐거운 생활 1-1 p. 69-70)

장단명	장단의 특징
세마치 장단	- 채곳에서 징을 3번 치는 장단 가락인 삼채를 말한다. 농악의 세마치는 3소박 4박으로 된 자진모리 장단과 같다. - 판소리 장단의 하나, 빠른 진양이라고도 한다. 이는 진양조의 6박 1각을 조금 빠르게 연주하는 장단이다. - 경기 민요에 사용되는 3소박 3박으로 된 장단 '아리랑', '도라지', '양산도', '방아 타령' 등과 같은 곡에 사용
굿거리 장단	- 농악이나 춤 반주 그리고 민요나 잡가 등에 쓰이는 장단의 하나 - 보통 빠르기의 3소박 4박으로 이루어짐 - 경쾌하거나 경동건동 하는 동작에 알맞은 장단으로 구성지고 흥겨운 느낌을 줌 - 농악에서 굿거리는 행진이나 춤 장단으로 쓰이고 민요에서는 '창부 타령', '닐리리아', '양유가' 등의 경기 민요에 많이 쓰임
자진모리 장단	- 판소리나 민요, 산조 등에 사용되는 장단의 하나 - 조금 빠른 3소박 4박 장단 → 자진모리는 보통보다 빠르게 모는 장단이라는 의미 - 민속악에서는 곡의 속도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사용하며, 산조에서는 곡명을 가리키기도 한다. - 무가에서는 덩더꿍이(늦은자진모리)와 반덩더꿍이(자진자진모리)라고 부른다. - 자진모리장단으로 된 음악은 구성지고 활기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전래동요의 상당수가 이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중모리 장단	- 판소리나 산조 민요 등에서 쓰이는 장단 - 조금 느린 3소박 4박 → 중간 속도 중에서도 중간에 해당하는 장단으로 중모리 장단보다는 조금 빠르다. - 민속악에서는 곡의 속도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사용하며, 산조에서는 곡명을 가리키기도 한다.
휘모리 장단	- 판소리나 산조, 민요 등에 사용되는 장단의 하나 - 회오리바람처럼 휘몰아치는 빠른 속도라는 뜻 → 민속악 장단 중 가장 빠른 장단에 해당 - 휘모리보다 빠른 장단으로 단모리가 있으나 이 두 장단을 휘모리 장단으로 표현하는 연주자가 많음

1. 관악영산회상 중 상영산·여민락 1장 (J = 30)

2. 세령산·가락달미·여민락 4·5·6·7장 (J = 45)

3. 삼현환입·하현환입 (J = 45 ~ 60)

4. 도들미 (J = 60)

5. 타령·군악·계면가락도들미·우조가락도들미 (J = 40 ~ 50)

6. 염불타령 (굿거리) (J = 60 ~ 70)

7. 취타 (J = 72)

8. 절화 (J = 60)

9. 가곡, 16박장단 (J = 20 ~ 40)

10. 가사, <처사가>·<양양가> (J = 30)

11. 시조, 8박장단 (J = 30)

단순화된 타령 장단

덩 덕 덩 덕

타령 장단

덩 기덕 덕 쿵 기덕 덕